



2021년 01월 가정통신문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양천구 요양원 2곳이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도 모든 직원들은 마스크와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고 근무중이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8일의 코로나검사에서는 직원 모두 음성이 나왔고 새해 1월 4일에 코로나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 1주일에 한번씩 코로나검사를 계속 받을 것입니다.

전직원이 코로나백신을 맞기까지는 긴장하고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겨울철 어르신들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실내온도는 23도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희시설에 후원을 하신분들이 계셔서 성탄절에는 어르신들께는 넥 워머를, 선생님들은 머플러를 선물해드렸습니다. 후원해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쁜소식은 이번에 한재숙 간호부장님과 이기숙요양보호사선생님이 구청장상을

이계영선생님과 원학희선생님이 국회의원상을 임명렬선생님이 대한노인복지회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기를 소망하며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